

여는시-창 / 도원경 / 이기형

책을 열며 / 천년은 살았을 은행나무에게 / 변연식

세상툭아보기 /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 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 유영재

현장 / 들은 울어도 생명은 질기다 / 김현숙

현장 / 한국 농민을 향해 겨뉜진 주한미군의 소총 - 경기북부(파주)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
장과 대응 / 박종양

현장 / 고삐풀린 투기자본,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을 삼키다 / 정동석

기고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과 협상과정의 문제 - 미군, 그 오만함의 끝은? / 고
이지선

기획 / 일미동맹재편 주일미군재편 '최종보고'에 대한 AWC 일본 연락회의의 규탄성명

기획 / 일미동맹재편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 2+2회담 번역: 김은아, 아가타 하
운

기획 / 일미동맹재편 한일 평화운동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AWC 일본연락회의 나가야 선
생님 / 오미정

평화비둘기 / 오직 당신만이 진실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네' / 최성희

평화카페 / 평화와 인권이 안동에서 만나다-제1회 안동인권영화제를 둘러보며 / 한철희

| 여는 시-窓 |

桃 源 境

이 기 형

지구촌동네 도원경 어귀
백목련마을에
평화의 목소리가 자지러지건만
비단결 고향길이 잘려
고랑포를 건너 가신 꽃님은
백발에도 돌아오질 않아
강물은 눈물이요
바람은 한숨이라
허허로운 허공
치켜든 손길을 더듬어
백발을 헤아리느뇨
오늘도 어화 태평가는 눈물로 끝났느니
상한 찻가슴
누구에게 하소연 하리
왕산악님이여
해원 비곡을 구슬피 뜯어 피부 사지를 멈춰서게 해주오
험한 세상 어서들 마감하고
참 평화가 열리는 아침
도원 희곡을 흥겹게 뜯어 오장육부를 춤춰 줄
그날만 가슴 졸여 기다리겠소

-2006년 5월 3일 서울 서초골에서-

천년은 살았을 은행나무에게

평통사 공동대표 변연식

5월 4일 대추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당신도 무참히 찍혀 쓰러지던 날,

어머니들은 우셨지요.

땅에 엎드려 울부짖으셨어요.

“엄니, 제가 이 꼴이 되었어요. 우리 땅이 이 꼴이 되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죽은 소사 아저씨가 날마다 물주며 애써 키운 저 은행나무는 왜 죽이는 거여, 이 천벌을 받을 놈들...”

다음날 아침 일찍 폐허로 변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허리가 패이고 뿌리 채 뽑혀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여리고 여린 당신의 잎들이 아직 시들지 않은 고운 자세로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빛나고 있었지요. 은행나무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의 죄라면 단지 그곳에 심어져 무성한 잎을 피워냈다는 것 뿐... 그래서 미군부대에서 바라볼 때 적의 움직임을 관찰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죄였지요. 그래요, 그날 우리 모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에 의해 모두 적으로 간주되었지요.

여명의 황새울... 애써 키워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 보낸 우리 아들이 미군부대 쪽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이 피어야 할 운동장에 우리들의 피가 뿌려졌지요. 4년 전 효순이 미선이 죽고, 서울 시청 앞에서 우리가 10만 촛불을 들었을 때 그들은 표를 구걸하였지요. 대통령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바로 이것이었나요?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며 그때 10만 촛불이 원했던 시대정신은 평등한 한미관계이지요. 이렇게 주한 미군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역할이 변경될 때에는 분명 할 말은 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그를 뽑은 그때의 시대정신이었지요. 노무현과 그의 정부는 철저히 우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평생을 땅을 일구며 고향을 지켜온 그들에게 상은 못줄지언정 이런 패악질을 해됐으니.

지난 3월 4월 5월 황새울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지켜보며 ‘아, 저들은 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옛날부터 눈에 물길을 막으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물길만 막았나요? 별 요상하게도 하늘 길을 따라 철조망이 날라져 왔지요. 임진강에 둘러쳐진 철조망을 조금씩 걷어내도 시원찮을 이 때에 어머님 아버님이 피땀으로 이룬 저 황새울 벌판에 쳐진 철조망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땅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땅을 사형시키는 2006년 판 인혁당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죽은 사람이 억만금의 보상금을 준다 해도 재심을 한다 해도 살아오지 못하듯이, 이 땅이 미군부대로 만들어지면 결코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5월 5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전국에서 달려온 여러분들이 그 철조망을 걷어냈을 때 이민강 아저씨가 온 팔로 달려와 우리를 껴안던 그 기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무심한 듯 거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김석경 아저씨의 얼굴에 살짝 비치던 그 미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화가 거저 주어진다면 좋으련만 우리는 다시 싸워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오신 그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쓰러지고 한 달 후 지난 6월 4일 대추리 도두리 리민의 날 행사가 대추 초등학교에서 열렸어요. 전날 마을 청년들이 열심히 운동장을 쓸고 다듬었습니다. 철조망에 막혀 농사일을 못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돼 버렸지요. 여러 어르신들과 천막을 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 맞은편 당신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당신의 그 어린 잎들은 더욱 무성해져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을 텐데...

당신이 몹시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천년은 살아 이 마을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당신이...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사무처장 유영재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한명숙 총리도 재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지 확장이 국책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미간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글에서는 재협상 관철투쟁의 의미와 그 근거를 밝히고, 재협상의 내용과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평택 투쟁 승리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1. 재협상 관철투쟁의 의미

재협상 관철투쟁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과 전면 재검토’ 요구를 변화된 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것이다. 올해 투쟁의 실천적 고리였던 농사 관철 투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조건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범대위의 동력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 핵심 안팎에서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지규모 축소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협정 상 시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조건에서 근거와 명분을 갖춘 재협상 요구는 중간층을 비롯한 국민여론을 얻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다. 이를 통하여 정부여당 일각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론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재협상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는 미국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된다. 이는 종속적 한미관계에 중대한 파열구를 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재협상 요구의 근거

(1) 주한미군 추가감축

① 법적 근거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2개의 관련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7조 제2항에는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시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

효하다”고 되어 있어 협정의 합법적 중단의 길을 열고 있다. 미 2사단 이전이 포함된 연합 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

② 사실적 근거

이처럼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재협상 사유가 될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대한 현저한 변화는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한미양국은 2005년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 안보현안’이라는 의제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5월 1일, “이 시점 이후 동북아 전반에 걸쳐 미국의 군사 지휘구조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2사단이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의 경우, 지난 3월 7일 윌리엄 펠런 미태평양사령관은 미 의회 증언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추가감축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린스펠드 미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 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발언은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한미양국이 공식 합의한 계획이 아니며, 규모와 시기도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미국 국방 최고위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넘기는 작업이 완료 단계이며, 지휘통제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전제’는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와 시기가 문제일 뿐 주한 미지상군의 추가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 전 보좌관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고정주둔 지상군은 철수하고) 사령부 요소와 해·공군 및 한국군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연대규모의 순환배치군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이후 전·평시 미군의 지상·해상·공중전력의 적합한 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에 대한 변동이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상군 축소 및 해공군력 강화라는 미국의 군사력 재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최 근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90년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D)’에 따른 3단계 미군 감축계획 때부터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조정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최근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와 군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에 따라 미뤄졌던 계획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초에 발표된 미국방부의 <4개년 국방개혁검토보고>(QDR)도 미국 본토 방어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해외 미군기지 조정과 재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추가감축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04년에 발표된 미의회 예산국(CBO) 연구보고서 <육군의 해외 기지 변화를 위한 대안>에서는 향후 주한 미 지상군 규모에 대하여 ▲ 1천명의 수용부대만 남기는 안, ▲ 1천명의 수용부대를 남기고 4천여 명의 여단전투부대를 순환 배치하는 안도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육군은 사상 처음으로 ‘501증원지원여단’을 올 여름에 창설하고 3천명 규모의 순환

배치여단을 둘 계획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되게 되면 미군기지재배치계획에 따라 주둔하기로 되어 있는 14,491명의 평택 주둔 병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병력 수가 대폭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여 기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동의과정 생략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 동의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관련 책임 논란의 당사자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인정했듯 “한반도 안보환경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참여연대-한겨레21 공동여론조사 결과(5.22)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8%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3) 이전비용,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부의 기만행위

정부는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2사단 재배치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것임에 비해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도 미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미양국의 기지 이전 재추진 합의(2001. 12) 이전에 발표한 4개년 국방개혁검토(QDR ; 2001. 9)에서 세계미군기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90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우리 정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부담원칙 관철’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이 이전을 요구한 캠프 님블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나,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비용 일부를 미국이 부담한 것도 정부의 주장은 부인하는 사례다. 더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엔사·한미연합사 이전은 미국이 요구한 것인데도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미군재배치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은 당시 허버드 주한미 대사, 노무현 대통령, 리차드 롤리스 미국측 협상 대표, 주한미군 홈페이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미군재배치와 관계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협상책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이 부담기로 한 것은 협상의 대표적 성과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상되는 5천억원의 비용 중 20억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용산, 미2사단 본부 등에 대한 정화비용 최소 수조원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측은 또 확장되는 팽성지역 부지가 지대가 낮아 홍수의 우려가 있다며 연병장은 2.6m, 건물부지는 3.3m 높이로 성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다. 여기에는 5천~6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285만평을 2.6m 높이로 성토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3천9백만 톤(15톤 트럭 260만대 분)의 점질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50m 높이의 야산 180개를 모두 깎아 투입하는 재앙적 수준의 환경파괴는 물론 운반과정에서 교통대란과 심각한 도로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다.

(4) 관련 사례

미군재배치가 중단 또는 변경된 사례도 있다. 90년 한미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일부를 시행하다가 비용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한미양국이 합의했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도 2002년부터 시작된 3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해노코 이전문제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8년을 끌다가 미일당국이 합의했던 이전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2사단 재배치의 근거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의 경우, 한미간에 2002년에 합의되어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쳤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한 직접적 사례다.

미국이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이 8년에 걸친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자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부지 규모를 당초 22만7천 평에서 5만6천 평으로 축소키로 한 사례도 있다. 또, 산리즈카 주민을 비롯한 전국적 투쟁과 단 3가구의 이주거부로 나리타 국제공항의 활주로 추가 개설이 40년 동안 중단되고 있다.

이처럼 재협상의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국내외의 변경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을 우선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발이 두려워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가 지적하는 대로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회피하여 주민공동체가 파괴되고 엄청난 사회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면 평택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3. 재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할 내용과 상

정부는 북에 대한 남의 군사력 우위를 반영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정치·군사·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주한미군의 대규모 조기 추가감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또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측의 이전비용 전액부담 방침도 당연히 재논의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추가감축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와 그에 따른 대체부지 규모 산정과정에서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 기초하여 한미양국은 다음과 같은 경로와 방식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미국의 군사 지휘구조 재정립”을 반영하여 즉, 축소 재편하여 기존 캠프 험프리지지로 이전한다.
- 용산기지 이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8만평에 이르는 골프장(18홀)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기존의 다른 골프장 등을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지 소요를 축소한다.
- 미2사단은 추가감축이 완료될 때까지 현 기지에 그대로 주둔한다.
- 미지상군은 수용부대(증원지원여단)만 남기고 나머지 부대는 모두 감축한다.
- 한미양국은 추가감축을 반영하여 기지 규모를 다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제공된 20만평 규모의 임대 방식의 미군가족주택 부지를 제외한다.
- 미지상군 증원지원여단을 기존 캠프험프리지지 등으로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지 확장 없는 기존 캠프 험프리지지로의 축소통폐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요구할 것이다.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의 최소화를 요구할 것이다.
- 정부는 한미간 재협상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진행되는 동안 기지 확장사업을 중단하고 주민의 영농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매듭되면 주민을 비롯한 국민과 정부의 이익은 물론, 나아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익도 일정하게 보장될 수 있다. 즉, 주민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여 한반도 평화위협을 줄일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강제철거로 인한 대규모 충돌과 불상사, 그로 인한 민심이반을 피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면서 끼치게 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도 자신들의 요구인 미군재배치계획을 이행하면서도 반미감정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완강한 현장 투쟁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 벌여야

위에서 본 것처럼 재협상은 필요하고 가능하며 그 대안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평택기지에 대한 용도와 이전 비용 변경시 재협상 동의 여부’에 대하여 82.2%가 동의한 앞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재협상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협상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한미양국은 움직일 것이다. 즉, 현장을 중심으로 한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실천이 결합되어 재협상 관철투쟁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상승 발전할 때만이 재협상은 비로소 한미양국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평택투쟁 승리의 길은 재협상 관철투쟁이라는 쟁취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과 역량을 집중시켜 이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에 평택범대위는 군부대 및 철조망 철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 등의 요구와 함께 평택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를 핵심과제로 하여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집에 대한 강제철거를 막아내고 한미간 재협상을 통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평

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2003년부터 이 싸움을 개척해온 평통사가 앞장서자.

5월 22일

아예 평택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후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신발, 약, 세면도구 또 뭘 넣어야 할까? 앗! 카메라가 빠졌다. 짐을 넣다 보니 등산 가방이 한 가득이다. 평택으로 향하는 길, 난데없이 비가 쏟아진다. 여름 장대비도 아닌 것이 무진장 쏟아진다.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가방 무게만큼이나 어깨가 무거워진다. 비 타인지, 일에 대한 부담감인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인지... 일단 부딪혀 보자! 아자! 아자!

버스를 타고 대추리로 접어드는 길가에 파릇파릇한 모들이 심어져 있다. 순간, 평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연행된 주민들 면회하던 길에 가지런히 심어져 있던 모를 보며 숨죽여 우시던 도두리 부녀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들 다하는 모내기인데...'하며 남의 눈에 모내기한 것만 봐도 그것이 이제 부럽고 서럽기만 한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내 것이 되고 있나 보다.

애써 고기며 과일이며 야채를 사서 양손에 킁킁대며 들고 간 평통사 숙소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 일을 나갔나보다. 예구 예구 내 존재의 가벼움이어... 하하하~ 웃음으로 서운한 마음을 날려 보내고, 먼저 도두리로 갔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며 내 손을 꼭 잡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이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다짐하며 평택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5월 28일

미군기지 확장으로 고향에서 떠나기를 강요당하는 주민들, 철조망 속에 갇혀 팔자에도 없는 감옥생활을 하시게 된 주민들, 이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속상한 일은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새하고도 먹을 걸 나눠 먹을 줄 알았던 순박한 사람들이 어느 날 미군기지 확장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게 되더니, 이젠 협의매수를 한 사람과 협의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리고, 정부에서 강제토지수용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정부가 주는 실농보상비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갈려, 어떤 것이 잘한 일이고 못한 일인지를 따지며 우격다짐하시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다. 본심과는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또 하나의 고통이다.

비록 철조망처럼, 경찰처럼, 군대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젠 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람으로 갈리고 있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공권력이 가져다 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절망감을 이겨 낼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공황상태... 너무도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를 때, 요즘 주민들의 맘이 그렇다. 바로 집 앞에 쳐진 철조망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커튼조차 못 여는 그 마음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낯엔 다른 동네로 일하러 가는 그 마음이,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군부대 포크레인이 짓밟아 놓은 것을 봐야

하는 그 마음이, 철조망 안에 심어 놓은 못자리와 고추, 마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궁금하여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농활 온 학생들과 함께 노~란 장화를 신고 논으로 첨병첨병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 모판을 뜯어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 것. 동네 아저씨들 모두 나와 구경하시고 어머니는 밭에서 상추 따서 밥 차려 주시고 오랜만에 동네가 시끄럽다. 썩썩 달려 나가는 이양기를 보며 흡족해 하시는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신다. “내 땅에 농사지으며 이렇게 신나보기는 또 처음이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농사꾼이 모내기 하는 일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을까?” 비록 철조망 바깥쪽이지만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으신가보다. 점심밥도 얼마나 꿀맛이던지 두 그릇이나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웠다. 비어있는 논이 없도록 빨리 빨리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의 처진 어깨를 다시 고추 세울 수 있을 텐데...

6월 7일

김지태 위원장님이 경찰서에 출두 한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구속방침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이 어제부터 경찰서 앞에서 농성중이고 문정현 신부님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시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셨다. 주민들은 집회 내내 경찰을 향해 소리치신다.

“내 아들 내놔”, “너 보다 똑똑한 내 아들 내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살겠다, 이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여”,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지태를 내 놓으란 말이야”, “죄는 지들이 다 짓고 살면서 죄 없는 우리만 괴롭히란 말이여”, “미국놈 똥이나 먹을 놈들아”, “잡아 가려면 국방부 놈들이나 잡아 갈 것이지. 왜 우리네들을 잡아가는 것이야?”, “죄는 잔뜩 걸머지고 있는 놈들이...”, “열통이 나서 못살아,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무신 놈의 경찰이 국민들은 죽이고, 미국 놈들만 살리는 것이여. 그게 우리나라 경찰이여?”, “너들은 죄 짓고 사는 거여.”

그 동안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서 하시지 못하던 말들을 다 쏟아내신다.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찌시려고, 저러다 다치시면 어찌시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경찰 방패를 부여잡고, 폴리스라인을 부여잡고 울부짖는다. 황새울도 따라 울부짖는다...

문정현 신부님이 단식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구속된 활동가들도 단식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추리 어느 집 벽에 “들은 울어도 생명의 봄은 온다”는 시가 쓰여 있다. 나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다. “그리고 생명은 질기다”.

한국 농민을 향해 겨냥된 주한미군의 소총
-경기북부 (과주)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과 대응-

미군문제팀 박종양

도대체 주한미군에게 적은 누구란 말인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주의 한 마을에서 주한미군이 농민을 향해 소총을 겨눴다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이러한 의문을 주기에 충분했다. 총기위협 내용과 오랜 기간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건리 종합훈련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8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과주시 법원읍 오현리로 향했다.

먼저 사건 진상을 알아보았다. 27일 아침 6시경 마을 주민이 차에 농기구를 싣고 논으로 가고 있었다. 법원읍 오현 2리쯤에서 미2사단 4-7기갑부대 소속 급식차량인 미군 트럭이 차를 돌리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왕복 2차선 도로를 10여분간 막았다. 주한미군이 길을 잘못 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이 차를 빼라고 항의하자 미군은 이를 비웃었고, 화가 난 주민이 농기구를 들고 항의를 했다. 바로 이때 미군은 주민들에게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도망가는 미군의 트럭을 2Km정도 추격해 직전 2리에서 붙잡고 사과를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중대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농기구를 들고 항의하는 주민을 보고 위협감을 느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건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군측은 이에 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미군은 구두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증거가 남지 않은 구두 사과는 이러한 사건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과주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했는지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면 사과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도대체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갔다. 훈련 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를 돌려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10여분을 지체했다면 이에 대해 항의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군은 비웃었다. 게다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농부가 든 농기구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손에 드는 것들은 모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보이는 것일까?

다음으로 무건리 종합훈련장의 이야기이다.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추진위원회(이하, 백지화위원회)사무실에서 윤병설 위원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무건리 훈련장은 군사정권시절인 1980년 과주시 법원읍 직전 1리, 무건리 일대의 120만평 수용을 시작, 1981년 오현리 일대 3만여평의 수용 등으로 해서 1986 현재 총 350만평으로 조성되었다. 이 훈련장은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전술훈련장으로 전차의 포격훈련, 공격용 헬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군의 훈련장이지만 주한미군도 년 13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효순, 미선이 사건도 이곳에서 훈련 후 복

귀하던 미2사단에 의해서 발생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주한미군이 이곳에서 훈련을 할 때는 경찰과 전경이 상주하며 경계근무를 한다. 이날도 오현 1리, 2리 곳곳에서 전경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전경버스도 목격되었다.

무건리 종합훈련장의 확장계획은 그 규모부터 대단했다. 기존의 무건리 훈련장과 파주시 적성면, 법원읍 직천리·오현리, 양주시 비암리 일원을 포함해서 총1,100만평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길이 18Km, 폭 5Km의 직사각형 형태라고 한다. 국방부는 97년부터 토지 매수에 들어가 2008년 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2006년4월4일) 567억원을 들여서 655만4천평 매입했다. 이것으로 전체의 58% 확보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윤위원장은 매각에 나선 사람들이 주로 외지인이거나 98년 IMF이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현재의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추진계획을 2008년에서 2011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무건리 종합훈련장 조성계획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훈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획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 96년부터 토지 매매,거래를 금지한 상태이며, 건물의 개보수에도 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10여 년 동안 이 땅을 묶어놓고 하나 둘씩 비밀리에 매입을 하고 있으며 매입을 한 곳은 즉시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이 역시 주변을 돌며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일대에는 340여 세대의 62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농업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밤, 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무장한 군인들이 마을을 마음대로 통행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또한 전차의 포격훈련 때 발생한 썰도비탄에 의해 고등학교 운동장에 지름 1m50cm, 깊이 70cm크기의 웅덩이가 파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윤위원장은 이것을 인권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제기 했다. 또한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마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국방부는 한결같이 ‘훈련장 확장 계획은 변함없다. 예산이 되는대로 주민들과 협의매수를 할 것이다. 훈련 중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31일, 오현 1리와 오현 2리 사이에 화생방 훈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훈련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의 야산에는 백로, 외가리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주민총회를 통해 백지화위원회를 강화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백지화위원회는 훈련장 확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오현리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통해 무건리 군사종합훈련장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백지화대책위의 확대를 결정했다. 윤위원장은 무건리의 상황을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지역 군사훈련장의 확대, 통합의 추진과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기동군화의 진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투쟁일정(서명, 공청회, 대책위 확대)등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썰도비탄 : 포탄이 땅에 떨어질 때 뇌관 부위가 먼저 땅에 맞지 않고 포탄의 옆 부위가 바위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폭발하지 않은 채로 다시 튀어 올라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것을 말함. 반경 20Km에 까지 영향을 미침.

고삐 풀린 투기자본,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을 삼키다

인천평통사 정동석

지난 1월 25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1층 로비를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노동자 40여명이 점거한 소유의 일이 벌어졌다. 바로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이다. 자산가치 1,264억원의 회사가 그 절반도 안 되는 600억원(1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돌려받았으니 실제 투자한 돈은 500억)에 매들린 페터슨에 매각되어 매들린 페터슨은 6개월 만에 600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법인 해산 결정, 1,300명의 회산 직원은 모두 길거리로 나왔게 된 것이다.

요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IMF 이후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가 현실의 문제로 되고 있다. 이제 투기자본의 문제는 은행 금융권의 문제가 아닌 오리온 전기, 만도기계, 하나로 통신 등 제조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목 죄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4천 8백만 국민들의 삶이 투기자본의 손바닥위에서 움직일 것이 뻔해질 것이다.

이에 투기자본의 횡포와 그에 맞선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의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금속노조 오리온 전기 배태수 지회장을 만나 보았다.

수고 하십니다. 장기 투쟁 사업장으로 그것도 외국 투기자본에 맞서 힘든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평통사 회원들에게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시는 평통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투기자본에 의해 2005년 10월 31일 일방적으로 주식해산에 의한 청산결정으로 1,30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겨버린 오리온 전기 노동조합 지회장 배태수입니다.

미국 투기자본인 매들린 페터슨은 2005년 2월 15일 오리온 전기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① 전 직원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한다. ② 향후 3년 이내에는 인원정리 및 전보 분할 합병 사내하청 회사매각 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③ R&D(연구개발) 및 신규투자를 확대한다.

이러한 합의서의 약속을 믿고 매각에 동의하였지만 매들린 페터슨은 회사를 인수한 후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고 합의서를 무시한 채 139일 만에 회사를 청산하고 공장을 분해하여 설비를 중국 또는 인도로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7개월이 넘게 청산저지 공장정상화를 요구하며 매각에 개입한 정부와 투기자본 매들린 페터슨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우계열사였던 오리온 전기가 1999년 8월 워크아웃, 2003년 5월에 최종부도, 이후 3,967억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자되면서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이후 2004년 7월 채권단에서 오리온 전기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때 사겠다고 나선 곳이 바로 매틀린 패터슨(MP)입니다. 당시 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매각을 적극 주도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각당시 서울보증보험은 헐값 매각이라며 관계인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 목표가 6%인데 알짜회사를 0.6%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 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매각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반대로 매틀린 패터슨에 매각이 불투명 하자 정부가 나서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2005년 4월 8일 국무조정실이 개입하여 채권단을 소집하고 회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나 더 회의를 소집하는 등 미국 투기자본인 매틀린 패터슨에 오리온 전기가 매각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이때 정부가 주장 한 것은 고용보장 3년의 약속과 기술 선도사업체이기에 고용지표와 신규투자의 약속이 전제 됨으로 공적자금이 손실되더라도 매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단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경제 통상대사가 나서서 미국 투기자본인 매틀린 패터슨에 매각 되도록 하였고 그 경제 통상대사는 매틀린 패터슨으로부터 “매각이 성사되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사는 139일 만에 문을 닫았고 정부가 주장한 고용의 약속도 신규투자의 약속도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해외 투기자본과 싸움을 해보시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측과 투쟁을 벌이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더 힘드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매틀린 패터슨도 론스타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리온 전기에 들어왔습니다. 페이프 컴퍼니를 만들어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었는데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것입니다. 오리온 전기가 론스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300명 사원과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온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사전 통보도 없이 힘들여 가꾸어 온 일터와 공장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 투기자본이라 이들이 떠나고 나면 마땅히 싸울 상대가 없다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보다 제조업이 더 치명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더 큰데도 국민들은 론스타에 익숙해져서 몇 조 단위가 아니면 몇 백억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용보험도 기간이 다 끝나갈 텐데요.

회사 매각으로 고용보장 약속과 신규투자를 믿고 회사가 발전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기매각에 의한 일방적 청산결정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입니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경험 이기에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니든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인력 시장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어렵게 생활해 왔는데 7월이면 실업급여도 끝나고...

평통사는 주로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미국이 정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문화적 침탈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회장님께서서는 해외투기자본과의 힘든 투쟁 과정을 거치고 최근 한미 FTA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도 보시게 되면서 새롭게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가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이 투쟁을 하면서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일인 시위도 하고 노숙투쟁도 합니다. 단체로 움직이면 미국대사관 앞을 절대로 못갑니다. 공권력이 미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미국 투기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미국대사관에 항의서 한 장 접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실인데 한미 FTA가 완료되면 미국의 식민지이자 미국의 또 하나의 주가 되고 대통령선거가 친미 주의자들의 주지사 선거가 되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메틀린 패트슨과 한국 대리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진행은 메틀린 패트슨의 한국대리인 2명이 2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되고 3월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은 빨리 구속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감사원에는 매각 당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개입한 국무조정실 박종구 차관과 김태환 경제심의회관 그리고 외통부 박상은 경제통상대사들의 직무의 위법성을 밝혀 달라고 국회의원 19명과 함께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산지지 공장정상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처음 해보는 싸움이고 생소한 싸움이라 힘이 듭니다. 조합원들도 생활고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제조업에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우리 오리온 전기와 같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해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평통사 회원님들과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과 협상 과정의 문제

- 미군, 그 오만함의 끝은? -

녹색연합 고이지선

5월 4일, 평택 대추리에 군부대가 투입되었다.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가의 원대한 사업은 국가 안보,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미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평택 부지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미군은 자신들의 의무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2003년 한국과 미국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조사와 정화 절차에 대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 A)에 합의하였다. 미군기지 반환 통상 1년 전부터 한미 공동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오염은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이 합의서는 독일 다음으로 손꼽히는 높은 규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2006년,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협상 난항 - 귀를 막은 미군, 입을 다문 한국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05년 미군기지가 본격 반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흔들어 놨다. 그러나 2005년 반환 예정지 11개(연합토지관리계획 상)는 하나도 반환되지 않았다. 한미간 환경정화에 관한 큰 의견차 때문에 수시반환을 포함한 27개 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는 끝났지만 오염정화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군은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1년 이상 계속된 협상은 2006년 올해 초부터 SPI(안보정책구상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국방부가 환경부와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나름의 소신을 지켜온 환경부와 달리, 국방부는 어느 국가를 위한 부처인지 의심스럽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미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환경부에 압력을 넣었다. 오염조사가 끝난 27개 기지에 대한 정화비용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대 때문에 100억원의 세금이 손실된다는 주장을 하는 국방부 장관이 27개 기지 정화비용으로 추산되는 5천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환경현안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정보는 모두 한미 양측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가로막혀 오염조사 결과나 과정이 베일에 쌓여있다. 한국 언론과 여론을 두려워하는 미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 특히 환경부는 입을 열기 두려워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할 경우, 한미동맹을 저해할 것”이라며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 없이 정화에 관한 계획서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엄밀히 따진다면, 미군은 부속서 A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군만큼 적극적이거나 공세적이지 않다.

협상 당사자인 미군은 귀를 막고 한국 국민 여론이나 한국 정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입을 다물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SOFA, 제대로 해석해 보자.

지난 2월, 한겨레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환경부 문서와 당시 한미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개 미군기지 중에서 14개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기지 내부의 토양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정도가 아니므로 정화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소위 말하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는 2001년에 신설된 SOFA ‘환경에관한특별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으로, 여기에는 ‘이러한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군은 KISE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현재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KISE는 미국법인 CERCLA(환경오염보상법, 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국방부 지침에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CERCLA에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거나 혹은 위험이 현재 나타나는 해가 아니더라도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수 년 동안 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내 판례에서도 이렇게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KISE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주장은 미국법에 따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군이 주장하는 정화책임 회피의 또 다른 근거는 ‘원상복구 의무 면제’조항이다. 그러나 SOFA 제4조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없다’는 것은 환경조항이 아니라 미군이 건설한 시설을 한국 정부에 반환할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 받는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년의 부속서 A는 오염과 정화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반쪽 합의서이기이다. 하지만 부속서 A에는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 치유 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SOFA 제7조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고, 2001년 개정된 SOFA합의의사록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한미 협의를 거쳐 국내 환경법을 기준으로 정화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환경법은 국내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예로 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물질은 130여종이 넘는데 비해 한국은 불과 16종에 불과하다. 미국에 무조건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오만함, 그 끝은?

미군은 지난 4월 7일,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한 정화 계획서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전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군

의 보도 자료와 성조지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지하의 유류저장고를 제거하고, PCBs와 사격장의 불발탄과 납, 구리 성분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토양오염의 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미군은 마치 이런 정화계획이 주한미군이 한국 내 환경을 꼼짝이도 고려하고 있으며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굴고 있다. 그러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의 정화 없이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남게 된다. 전체 오염을 정화하지 않으면서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미군에게는 ‘정화’를 한다는 명분을 주면서 한국은 나머지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공산이 크다.

6월 5일, 버웨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에서 한국정부가 SOFA에도 없는 기준을 주장하면서 미군이 보인 최대한의 성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KISE가 미군의 정화기준인데 이를 넘어서 지하유류저장탱크(Under Storage Tank)를 제거하고 지하수 유류를 제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년 이상 협상의 쟁점이었던 부분은 모두 부인한 것이다. 미군은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군이 밝힌 정화계획의 범위에는 토양오염의 정화는 제외되었는데도, 마치 그것이 첨단 기술로 완벽한 정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도 환경정화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관련 규정은 위에서 언급했던 ‘환경에관한특별양해각서’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를 말하는 데 2000년 이후에 10건 이상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용산기지를 반환받을 때에도 역시 환경정화의 책임 소지를 두고 미국과 논란을 벌일 것이다.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서에서도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물론, 미군은 해외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우리뿐 아니라 어느 국가도 미국을 상대로 환경주권을 제대로 지켜온 곳은 거의 없다. 파나마, 캐나다,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적 고려를 안 하거나 오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미군기지를 반환받곤 난 후 증가하는 문제에 버거워하고 피해자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

SOFA에 세부조항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규정으로도 충분히 미국의 정화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항상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호의’와 ‘성의’로 포장한 정화계획을 발표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실천해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필요하다. 막바지에 이른 관련 협상은 2011년까지 반환될 62개 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각 국의 환경권을 존중할 때에만 동등한 외교관계를 이루고, 각 국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일 일미양국은 안전보장협의회(2+2회담)에서 주일미군재편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최종보고 '재편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주일미군 재편은 주한미군 재편과 함께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해외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가 일본을 모델로 하여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과 이를 규탄하는 AWC 일본연락회의의 성명을 신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은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해야 할 공동의 투쟁과제를 갖고 있기에 일미동맹 재편 및 주일미군재배치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AWC 일본연락회의의 나가야 선생으로부터 AWC와 일본 평화운동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 편집자-

주일 미군재편 '최종보고'에 대한 AWC 일본연락회의 규탄성명

2006년 5월 6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1. 5월1일, 일미안보협의회(2+2)에서 '공동문서'와 함께 재일-재오키나와 미군재편의 최종보고 '재편 실시를 위한 로드맵'이 합의-발표되었다. '공동문서'는 말한다. '일미동맹은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기초이자 지역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의 요구이다.' 또 이 일미동맹은 '전지구적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도 말한다. 이는 세계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재편-재배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침략-지배를 더욱더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지역까지를 포함한 '불안정한 활'을 커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미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내용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전제로 하고, 또 이를 지지하는 '동맹국'인 일본과의 연계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지배를 위한 항구적인 일미의 전쟁체제 확립이야말로 이번 미군재편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2. '공동문서'에서 작년 2월 '2+2'에서 합의된 '일미의 공통전략목표'문서(이하 '공통전략')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정세나 중국에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투명성'이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으로 견제와 포위의 뜻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즉시 무조건 6자회담 복귀' '완전-무조건-불가역적인 핵계획 폐기' '모든 불법활동과 확산 중지'라고 하면서 비판의 논조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공동전략'문서에서는 말로나마 쓰여 있던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나 '여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따위의 문언을 이미 찾아볼 수가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준비에 한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이번 미군재편의 목적과 방향의 중심축임은 이제 명백하다.

3. 최종보고 '재편 실시를 위한 로드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재오키나와-재일미군을 재편하여 더욱 강력한 공격태세를 형성하려는 점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부 '반환' 합의와 함께 오키나와 북부에 강력한 미군의 공격 거점을 형성하는 계획이 밝혀졌다.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군(群)과 관련해서도 캠프 자마에의 미 육군 제1 군단 사령부 개편 이주 및 육상자위대 중앙 즉응 집단사령부 이전, 미 공군 요코타 기지에의 항공자위대 항공총사령부 이전 등, 사령부 상호의 일체화가 더욱 선명해졌다. 또한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를 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본토’에서는 자위대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일미 군사력의 상호적인 연계-일체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미 해병대 이와쿠니 기지에는 아즈기(厚木)기지에서 미 해군 함재기 부대를 이주시키고, 항공자위대 츠이키(築城) 기지(후쿠오카현), 니이타바루(新田原) 기지(미야자키현)에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가 가졌던 전시수송기지 기능을 완전히 이전시키려고 한다. 바로 한반도와 중국을 겨냥한 일미군사기지 대 재편-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쿠니 기지는 무려 140기가 넘는 전투기가 밀집하게 될 것이고, 미 해군-해병대 항공병력이 집중되는 극동 최대의 공격기지로 크게 강화될 것이다. 대형 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이나 최첨단 탄약고를 갖춘 거대한 공격기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4.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괌과 함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전토를 중요하고 주요한 전략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한편 재일미군재편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편-재배치를 통해서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부대의 신속기동군화 및 주한미군 기지의 전선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화는 대북한 선제공격, 대 중국 군사적 견제를 위한 거점 건설의 움직임이다. 한국남부의 한국군기지-미군기지는 전선병참기지로 개편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가지고 주한미군의 한국 외 지역 파병에의 길을 열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연습 명목, 로테이션 이주 명목으로의 상주체제를 넘어 필리핀에 대한 미군재주둔을 기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군 항모 6척을 배치할 계획도 진행될 것이다.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호응하여 자위대 강화를 기도하고 있다. 재작년 말에 ‘신 방위계획 대강’에서 ‘즉응성’ ‘기동성’ 중시를 내세웠다. ‘통합막료장’이 설치되어 육-해-공 삼군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를 시작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항구화하는 ‘파병항구법’이나 ‘자위대법 개악’을 하려하고 있다. 97년에 책정된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여 일미공동작전계획을 더 실전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레벨업 해가는 방침도 내세웠다. 그리고 헌법개악을 위한 작업을 이러한 동향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6. 일본정부가 미군재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자위대 강화나 헌법 개악이란 일미 군사일체화와 아울러 일본기업의 아시아진출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체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는 지난날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왜곡-정당화하고 자원이나 영토를 둔 분쟁사태를 일으키고 민족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영토인 것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일본정부의 행동은 이미 영유권 주장의 범위를 일탈한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 일본정부의 대 아시아 세계화 전략의 진전과 민족배외주의-영토확장주의의 고무, 및 미군재편 속에서 진행되는 일미군사일체화-자위대강화와 ‘국군화’는 바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7. 우리는 이러한 미·일정부의 위협하고 사악한 야망을 부수기 위해서 미군재편 반대투쟁을

시대를 구분 짓는 중요한 투쟁과제로 규정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번 미군 재편은 미·일의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맹반발을 받고 있고, 전국의 노동자 민중을 분노시키고 행동으로 나서게 하고 있다. 오키나와 해병대 사령부의 캄 이전 비용을 포함하여 총액 3조엔 이상의 거액이 미군재편을 위해 투입되려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은 일본의 노동자민중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려지게 된다. 미일군사기지를 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더욱더 심각한 기지 피해를 받게 된다. 주민투표에 승리한 이와쿠니 시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노동자민중들이 미군재편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들은 압도적 다수의 민중들과 함께, 또 그 최전선에서 투쟁할 것이다.

8. 또 미군재편이 한국에서의 미군재배치나 필리핀에서의 미군재주둔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 및 미군재편과의 투쟁이 아시아 민중의 공통 투쟁과제임을 확인하고 아시아주둔미군 완전철수라는 슬로건과 전망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일·한 군사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동맹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확립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철저히 반대한다. 아시아의 평화는 일미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일미동맹 강화와 확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일미동맹을 분쇄하여 일미의 아시아침략 지배 야망을 부수는 가운데서만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상을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전열을 더욱 공고하게 강화해나갈 것이다.

미군재편을 분쇄하고,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악을 분쇄하는 투쟁을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를 위해, 또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

2006년 5월 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아소 다로 외상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일미안전보장관계를 중핵으로 한 일미동맹은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요소이다. 이 강력한 파트너십은 전 지구적 위협 과제에 있어서나 양국이 공유하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촉진하는데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미동맹은 지역 및 세계의 안보환경 변화에 성공리에 적응하고 있으며, 장래의 위협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깊이와 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국의 파트너십이 강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국민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

오늘 회의에서, 두 나라 장관들은 세계 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폭넓은 영역의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의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일미동맹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동 전역에서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란에 대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UN 안보리의 행동을 모아내는 데서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 나라 장관들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계획 폐기, 모든 불법 활동과 확산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외교노력을 통한 지역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아시아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두 나라 장관들은 안전보장위원회가 공통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2005년 2월 합의를 확인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2005년 10월 안전보장협의회 공동문서에서 합의한 바 있는 양국간의 역할, 임무, 능력에 관한 권고에 따라 탄도미사일방위, 양국간의 우발 계획 검토 작업, 자료와 정보의 공유, 국제평화협력활동,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는 것에 있어 양국간의 안보, 군사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따라서 두 나라 장관들은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 안보환경에서 확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보 및 방위협력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개최된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두 나라 장관들은 오늘의 동 위원회 문서 「재편실시

를 위한 일미 로드맵」에 기록된 대로 2005년 10월의 재편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상세하게 합의하였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런 재편 구상의 실시가 동맹관계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킬 것이고, 또 지역에서 동맹 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인식했다. 이후 실시되는 조치는 일미안전보장조약 하에서 일미 쌍방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를 비롯한 현지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일미 쌍방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재편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나라 장관들은 이런 재편안을 완료시키는 것이 동맹 재편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일미안전보장조약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이 계획을 더욱 빨리 철저하게 실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번역 | 김은아, 아가타 하운, 정리 | 오미정

한일 평화운동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평통사가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AWC)’과 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11월 16일, 17일, 18일 평택과 경주, 부산에서 ‘APEC 반대, 부시방한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용으로 공동 포럼과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면서였다. 당시 해외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AWC 일본 연락회의 활동가들 중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전체 진행을 도왔던 이가 나가야 선생(AWC 일본 연락회의 전국 사무국 소속)이다.

AWC는 언제 만들어 졌나?

1992년 10월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파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12개 나라와 지역이 모여서 일미군사동맹과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대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 후 참여한 단체들이 모여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어요. 그것이 AWC의 시작이었고 저도 그때 일원으로 참가했지요.

1991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후,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한다. 이때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걸프전 파병을 계획하였으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교전권의 부인과 전력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와 전수방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일본내 여론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주변국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PKO 협력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자위대가 해외로 파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PKO 협력법이 제정된 3개월 만인 92년 10월에 자위대는 캄보디아에 파병되었다.

평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친구와 함께 차별이나 환경 문제를 공부하고 유인물도 배포하고 그랬어요. 불량학생이었지요(웃음). 80년대 들어서서 일본의 노동운동은 점차 우경화 되어 갔어요. 그런 시대를 예측하면서 그 우경화 경향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가들이 지금 AWC 중심 중의 하나인 ‘자립노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자립노련은 처음에는 기업노조였는데, 지역에 있는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지역적으로 폭넓은 연대체가 만들어 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청년부가 횡단적으로 조직이 되어 같이 공부도 하고 여름 캠프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젊은 활동가들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지금 AWC 운동을 함께 해왔지요. 저도 그때부터 참여해 왔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일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에 침투했죠. 80년대 중반. 특히 필리핀에 대한 자본 침투와 지배가 심했어요. 그 즈음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정권이 타도되었고 필리핀과 연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필리핀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JPM 90’이라는 운동을 펼쳤는데 일본이 다시는 아시아를 침략, 지배, 유린하지 않게 하는 운동이죠. 그 운동을 토대로 하면서 AWC가 생겼어요. 한편에서 자립노련은 직장에서 국제연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필리핀 노동자들을 일본에 받아들여서 함께 노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필리핀에서 큰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 출신 노동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 의류나 의약품을 보내는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하면

서 일본 노동자와 필리핀 노동자가 똑같은 노동자라는 교육을 결합했지요. 저에게는 의의있는 경험이었어요.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높은 수준의 운동과 필리핀 민중들을 돕자는 인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결합된 것이지요.

그럼 한국말을 배우게 된 계기가?

1995년에 AWC 2차총회(국제회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수갑 선생님이 참여하셨어요. 이수갑 선생님은 총회 참가 후 한국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한마디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재일교포 분들에게 번역을 부탁했었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AWC 일본 연락회의에서 두명을 한국어 공부를 시키자 해서 제가 하게 되었지요.

2006년 AWC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미군재판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 특히 이와쿠니 미군기지 확장 중단 투쟁이죠. 원래 이와쿠니 시에는 AWC 지부가 없어요. 이와쿠니 시가 포함된 야마구치 현의 다른 시에는 지부가 있죠. 작년 6월 처음으로 AWC로서 이와쿠니 시에서 기지 확장 반대 집회를 했어요. AWC 야마구치 현 지부의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원정을 가서 같이 유인물도 뿌리고 공동투쟁도 계속 하면서 이와쿠니 시민들과 신뢰감이 쌓였죠. 그렇게 해서 평통사 박종양 부장이 참여한 올해 3월 집회가 성공리에 치러졌고, 주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주민들이 기지 확장(아즈기 기지에서 함재기 부대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최근 들어 평화운동이나 반기지 운동이 더 활발해진 것인가?

그런 편이죠. 미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참혹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사건이나 범죄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전국신문에서 별로 보도가 안됐을 뿐, 그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나 분노가 계속 있어왔죠. 이와쿠니에서도 그래요. 정말 많은 범죄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잘 표출이 안되었던 거죠.

최근 들어 미군재판과 재배치가 본격화되면서 반기지운동이 활발해진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잠재된 깊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분노가 있었던 거죠. 아무런 의논도 없이 기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자세여서 더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요.

평택 투쟁에 대한 인상?

평택에는 5·4사태 전에 두번 가 본 적이 있어 이번이 세번째 방문이었는데 무너진 대추초등학교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생업을 빼앗긴 상태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통사 동지들이 희생적으로 투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일본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들과 지원자를 분리하는 식의 보도도 많았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오는 6월 18일 범국민대회와 7월 9일 제4차 평화대행진에 일본과 해외에서의 연대를 집중하기 위해서 AWC로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평통사에 대한 인상?

그냥 연구단체도 아니고, 그냥 활동가 단체도 아닌, 연구와 실천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AWC도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활동해야 하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어요. 특히

작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투쟁을 준비하면서 개별 활동가들에 대한 친근감도 생기고 있어요.

한일연대투쟁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지금 한일 간에는 중요한 공동투쟁의 과제가 산적되고 있어요. 바쁜 일정으로 교류를 하는 동안에 역시 서로가 신뢰감을 갖고 서로의 운동상의 고민이나 새로운 시도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국제연대를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한국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0일부터 미군문제팀 정용진 국장은 AWC 일본 연락회의의 순례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각 지부를 돌아다니며 반기지 운동과 강연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평화,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주한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를 막아내는 것이 평통사와 AWC 일본연락회의의 공통된 과제이니만큼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정리 | 오미정

‘오직 당신만이 진실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네’

뉴욕, 미술인 최성희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에서는 우주 평화를 위한 시민 연대 모임(Citizens For Peace In Space)이 미 국방부, 국회, 그리고 군수업계가 22번째로 여는 우주 학술회에 대항하여 ‘오직 당신만이 진실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네’(Only You Can Prevent Truth Decay-2006 Space Expose’Um)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역 투쟁을 벌였다. 전 미 공군 용사출신의 반전 평화운동가인 브루스 개논이 1992년 설립, 주도하는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지구 연대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ww.space4peace.org)의 지부이기도 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우주 평화를 위한 시민 연대 모임’은 은퇴한 신부님인 빌 설즈맨을 중심으로 80년대에 세워졌다.

콜로라도 주는 미 전역 우주 공군 최고 지휘 체계가 있는 페터슨 공군기지를 비롯, 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럽맨, 레이시온, 보잉, ITT 등 각종 거대 군수·정보 산업체가 들어선, 미 정부의 우주를 통한 제국주의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 그들의 연간 학술 회의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민 연대 모임이 대다수를 이뤄 브루스 개논, 그리고 최근 미군 전략 명령체계가 들어선 네브래스카 주 활동가들 등 총 30여명이 며칠간의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우선 우주 학술회가 열리는 브로드무어 호텔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였다. 시민들은 비싼 호텔에서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을 꿈꾸는 8천여 명의 심포지엄 참가자들을 풍자, 밤새 집에서 만든 발로니 샌드위치와 호루라기를 군 장성들, 기업, 정부 인사들에게 나눠주며(물론 그들은 시위자들을 피해갔지만) 진실을 말할 것을 종용했다. 전단에는 “군사 우주 프로그램에 만연하는 기만에 대해 호루라기를 불어라!”라고 써 있었다.

그 외에 최근 전 세계 통신을 다 빨아들이는 스파이 돔들이 들어선 버클리 공군 기지와 그 주변의 노스롭 그럽맨과 레이시온 등 군수 기업체 앞에서의 시위, 웰드 군의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 앞에서의 시위, 그리고 두 차례의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포럼 등으로 이어졌다. 스파이 돔에 대해 브루스 개논은 현재 영국, 독일, 호주 등과 연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는 개인 자격 참가였지만 평통사에서 발행한 평택 주민들의 투쟁단신 등을 복사하여 배포하였고 포럼 자유 토론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민들의 투쟁이 한반도 등 전 세계의 평화에 끼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도미니칸 수녀님들인 아데스 플라트, 재키 허드슨, 캐롤 길버트 등의 참석과 그들의 핵반대 평화 투쟁을 그린 브렌다 팩스의 다큐멘터리 ‘신념’(Conviction), 그리고 일반인들과 대학과 레스토랑에서 한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이었다. 세 수녀님들은 ‘신성한 지구와 우주의 밭갈이들’(Sacred Earth and Space Plowshares) 소속으로 2002년 10

월 6일 콜로라도 주 북동부에 있는 웰드 군의 핵미사일 지하격납고(Minuteman III Silo)에 진입하여 가공할만한 미국의 핵무기 실상을 폭로하는 퍼포먼스이자 반핵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들은 2003년 국방 방해와 정부 재산 침해라는 명목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각각, 40, 30, 33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이후 최근 집행 정지로 풀려나온 와중에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사람들을 크게 고무했다. 행사 참가로 그들 자신에게는 또 다른 형이 덧붙여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토론이 열렸던 그릴리 시 (수녀님들이 2002년 이후 옥살이를 보냈던 곳) 레스토랑에서 이미 22번이나 비슷한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70살이 넘는 아테스 플라트 수녀님을 비롯, 세 수녀님들의 확신에 찬 연설은 사람들을 크게 고무했다.

4월 4일 우리는 수녀님들과 함께 그들의 2002년 현장인 웰드 카운티의 N-8 핵미사일 지하격납고를 방문하여 시위를 벌였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신문들이 관심을 보였다. N-8이라는 뜻말만 가까이 보일뿐 수녀님들의 시위 이후 쇠창살이 더 겹으로 쳐져 멀리서밖에 볼 수 없는 지하격납고는 두꺼운 콘크리트 판으로 덮여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반핵 운동을 했던 네브래스카 주의 팀 라인으로부터 이곳이 미 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15-30분 안에 모든 지휘, 작동, 완료 체계가 가동하여 핵미사일 다발이 8100마일까지 날아가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 현재도 업그레이드가 계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황당했다.

이런 곳이 미 전역에 500개가 있고 콜로라도 주에만 49개라니 정말 씁쓸한 것은 브루스 개논 등이 지적하듯 이미 시스템화 된 미 군산복합체의 실상은 군 관련 사업과 교육을 거의 유일한 지역 경제 발전이자 미래의 비전으로 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 내 보수 크리스티안계가 군과 손을 잡고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빌 설즈맨의 친절한 안내로 보수 우익 크리스티안의 총 본산이자 다큐멘타리에도 나온 콜로라도 북동 끝에 있는 ‘새로운 삶 교회’(New Life Church)에 간 바 있다. 거의 야구장을 연상케 하는 규모의 한 구석에 교회의 대상으로 걸린 듯한 북한기와 이슬람계 국가들의 깃발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N-8 핵미사일 지하격납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참가자들은 ‘죄의 현장, 건너지 마시오’라는 노란 띠와 ‘대량 살상 무기’ 뜻말을 항의의 표시로 철조망에 둘렀고 한 참가자는 핵미사일 지하격납고를 추방하자는 뜻말을 들고 와 사람들의 서명을 주도했다. 수녀님들은 땅의 평화와 생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드러운 동작으로 아름답게 불렀다. 수녀님들을 비롯, 빌 설즈맨, 브루스 개논 등 이 나이 많은 운동가들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소수 시민들은 미국의 참 양심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있는 한 미국의 변형을 꿈꾸어 본다.

◆ 사과 정정 : 전 기사, “이란-1949년의 추억과 2006년의 의지”에서 이란 모사택 민주 정부의 거꾸러짐은 1953년으로 고칩니다.

영화와 인권이 안동에서 만나다

- 제 1회 안동인권영화제를 둘러보며-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경북 안동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화제의 제 1회 안동인권영화제다. “인권”이 지향하는 속성과 특정적 주제로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등 몇몇 대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열리던 인권영화제가 안동과 같은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

<안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전교조 안동중등지회>가 공동주최하고 <안동가톨릭상지대학>이 후원한 이번 안동인권영화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안동평통사> 회장이자 공동대회장이기도 한 김창환님의 말이다. “이번 안동인권영화제를 통해 우리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점차 경직되어 가는 인간의 문제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 현재 평택 미군기지 확정저지 투쟁에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싸움을 선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게 지방이라는 한계를 감안,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자는 현실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제 1회 안동인권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 전반은 강석주 사무국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피재현 정책의장이 작품을 선정, 섭외하였는데 피재현 정책의장에 따르면 작품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을 고려했다고 한다. 우선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료상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접근하기 쉬운 고전적 작품과 또 최근 화제작 위주로 편성하여 인권 개념이 생소한 일반시민들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군으로 엄선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런 주최 측의 고민과 치밀한 기획 속에서 탄생된 이번 안동인권영화제에서 나름대로 돋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았는데 다음은 가장 평이 좋았던 작품 몇몇을 골라봤다.

먼저 첫날 시작품인 “대지의 소금”. 이른바 인권과 민중영화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1950년대 뉴멕시코 주 실버시티의 아연광산에서 벌어졌던 광부파업을 소재를 한 영화다. 잇따르는 광부매몰 사고와 백인 광산 회사의 무차별적인 횡포에 분노한 현지 멕시코인 광부들이 결국 파업을 결의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파업 와중에 계속되는 사주들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 속에 파업은 이분 사멸되고 점차 와해되어 간다. 결국 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남편들에게 또 다른 억압을 받아온 억척스런 광부의 아내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인권영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여성운동측면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이중 구도의 매우 여운이 짙은 영화라는 것이 이날 관람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음으로 주목 받는 영화로는 이튿날 상영되었던 “전투지역”과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다. “전투지역”은 전후 이라크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 영화다. 일반적으로 다큐가 빠지는 지루함과는 달리 이 영화는 현지 이라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시선을

확보하는 만큼 전후 이라크의 상황이 절절할 정도로 처절하다. 왜 우리가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지 그 의문의 해답으로 보이는 흔치 않은 고발 영화다.

반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언뜻 그 흔한 사랑타령영화와 많이 닮아 보인다. 하지만 그 흔한 사랑 속에 가슴 찡한 특별함이 있다. 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로써 보기 드물게 흥행에 성공한 이 일본 영화는 다리 불구인 주인공 조제와 건장한 청년 츠네오의 진실한 러브스토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속, 불구인 조제가 츠네오를 통해 바라보는 현실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호랑이와 물고기라는 장치를 통해 잔잔하게 투영된다. 즉, 호랑이와 물고기는 불구인 그녀가 유일하게 꿈꿔오던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직면한 어찌지 못하는 절망적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애잔하게 되묻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번 인권영화제 전반을 아울러 가장 큰 충격을 준 작품이 다음의 “취한 말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작품은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의 산간 변경마을이 주무대로 쿠르드족의 삶과 비애를 다룬 작품이다.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는 혹독한 겨울을 이용, 이라크와의 목숨을 건 밀수를 통해야만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쿠르드족의 처절한 삶을 잔잔한 시선으로 담았다. 또 그 속에서 불구인 동생의 수술비를 벌고자 노새에게 술을 먹이면서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국경을 넘는 한 소년가장을 통해 현실적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진지하게 되묻는 영화이기도 하다. 비록 우리와 같은 시공간대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발하는 영화이기에 그만큼 진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영화이기도 하다.

또 이번 안동 인권영화제는 자라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인권의 교육적 측면을 확대하기 위해 나름의 배려를 했다고 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장 영화이기도 하며 선정작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별별이야기”와 “여섯 개의 시선”, 그리고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등이 그런 작품군들이다. 일면 우리들이 매몰된 일상 속에 무감각하게 받아주던 획일적인 삶들을 다른 시각으로 들춰보며 또 반추를 시도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 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제 1회 안동인권영화제는 전반적으로 주최 측의 기대와 달리 다소 일반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적어 행사장 분위기가 한때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의미미한 행사라는 점과 후원과 홍보에서 약간의 미비점만 보완된다면 앞으로 연례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평가를 통해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

이를 반증이라 하듯 지역의 각종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안동인권영화제의 순향이 예견되는 배경이다.

한편 이번 영화제 대회장인 안동 평통사 김창환 회장은 5월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번 영화제를 위해 각종 기금 및 후원에 동참해 주신 지역의 뜻있는 모든 분들과 또 그 동안 준비에 몰두했던 준비위원들, 그리고 공동주최에 흔쾌히 응해주신 전교조 안동중등지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남은 기금 중 상당액을 평화와 통일을 열기 위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게 기부할 것을 안동인권영화제 준비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하기로 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안동 인권영화제가 안동지역의 보통명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한철희 안동평통사 교육선전부

평통사 외인구단,

615 통일축구대회 4강에 올라

통일뉴스에서 주최한 통일축구대회가 6월 4일(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평통사는 시민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4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평택투쟁으로 모두가 바쁠때 축구로 투쟁을 대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임한 우리 선수단은 음료수, 선수복, 열띤 응원도 전무한 상태에서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고 결국 4강까지 진출 하게 된 것.

8강전과 4강전이 열린 6월 3일과 4일, 그동안 소홀했던 미안함을 가슴에 담아 힘찬 응원을 펼쳐 응원만큼은 평통사가 우승감이라는 주최측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평통사 선수단은 이번 축구대회를 위해 의정부, 인천, 부천 등에서 모인 외인구단.

박순길 회원은 “예선 첫날에는 아침 9시에 인천에서 전철타고 왔는데 교체선수가 없어서 세 경기를 모두 뛰고 밤 9시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12시간 동안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었다”고. 그래서 16강전, 8강전에는 직장 축구팀에서 같이 뛰는 동료들을 ‘밥 사주고 운전 해주며’ 축구장까지 모셔왔단다. 평통사 후원회원인 이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평통사 소속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른 팀 경기를 사진촬영까지 해 가며 분석하고 있는 정명락 회원, “상대팀에 대한 전력 분석이 다 끝났다. 상대팀은 선수복도 없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8강전을 맞아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니 이는 바로 등판에 평통사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11벌의 선수복이었다(문지기는 다른 옷을 입어도 되니, 교체선수가 2명 이상이면. 선수복까지 바꿔 입어야 했다). 정명락 회원 덕에 단일한 선수복으로 단장한 평통사 선수들은 2-0으로 4강진출 성공.

출전팀 중에 가장 평균연령이 높은 평통사 축구팀, 일을 내겠다더니 정말 일을 냈다. 이제 평통사 축구팀 창단은 기정사실이 될 듯.

대추리, 도두리 리민의 날에 열린

평통사 체육대회

6월 4일 평통사 체육대회가 대추리 도두리의마을 행사인 ‘리민의 날’과 함께하는 평화한마당으로 열렸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아래서 서로 아픈 마음을 쓰다듬으며 흥겹고 재미있게 진행된 리민의 날. 우선 대추리 부녀회가 준비한 푸짐한 쌈이며 나물이며 김치며 오이냉국 에다 돼지 2마리, 오징어, 고등어 첼판구이는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핵심이었다. 끊이지 않는 팽파리소리와 다같이 손발을 맞추며 춘 꼭지점 댄스. 주민의 즉석 제안으로 이루어진 대추리 부녀회와 평통사 남자회원들의 축구대회는 평통사 회원들마저 부녀회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부녀회의 승리로 끝났다. 회원들의 자녀들과 마을의 어린이들이 함께 뒤섞여 달린 어린이 달리기 시합. 1등이든 꼴등이든 다같이 선물을 나눠 받으며 오랜만에 주민들의 얼굴 위로 웃음이 번져 나왔다.

풍물패를 앞세운 대추리에서 도두리까지 걷기행사에서는 행렬 꼬리를 졸졸 따라다니는 전경들과 곤봉을 등뒤로 숨기는 군인들, 5월 4일 이후 꼬박 한 달째 황새울 들녘을 파헤치는 포크레인들, 철조망과 웅덩이 너머 바짝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봐야 했기에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였다.

반드시 재협상을 관철시켜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시키는데 우리 평통사 회원들이 최선을 다 하자는 다짐으로 대대손손 농사짓자며 농민의 손에 법씨를 담은 상징의식을 끝으로 공식적인 평화한마당은 막을 내렸다.

문규현 상임대표와 홍근수 상임대표, 한미 FTA투쟁단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전략적 유연성 반대를 백악관 앞에서 외치다.

두 상임대표는 6월 4일(미국시각) 백악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전쟁과 빈곤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의 날' 집회에 나란히 참가하는 등 한미 FTA 방미투쟁단의 일정에 합류하였다. 문규현 대표는 6월 8일 미의회에서 백악관 앞까지 3시간동안 진행된 삼보일배에 참여하였고,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현지 단체들과 미주동포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위험성을 널리 알렸다.

문규현 대표는 11일 새벽에, 홍근수 대표는 13일 새벽에 귀국하였다.

4년전 미국장갑차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며 사고현장을 다녀왔다.

박훈 전 향린교회 집사 후원금 기부

글로벌소싱&솔루션21(주) 박훈 사장이 평통사와 홍근수 상임대표에게 500만원과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전북 평통사,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두산, 만주로 떠나는 중국평화기행] 예정

선착순 30명으로 경로는 [인천-대련-단동-심양-무순-심양-연길-용정-연길-안도-백두산-연길-화룡-청산리-연길-도문-훈춘-연길-심양-인천]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평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고.